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영화비평

Film Criticism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강진구

크리스천 문화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영화평론가, 한동대 강사

I. 영화 관련 학과의 인기가 말하는 영화의 현실

대학 입시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들 중의 하나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인생 항로가 입시라고 하는 이 시대의 통과의를 거쳐서 일차 결정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입시생들은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수능시험에 높은 성적을 받아 소위 말하는 명문대 진학을 꿈꾼다. '일류대' 학적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싶은 열망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대학 입시에 인생을 거는 이유는 명문대 입학이 곧 개인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현존하는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시문화에서 최근 일기 시작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실력과 상관 없이 명문대 진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명문대에 진

학을 하고 싶어도 전공 영역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다. 바로 영화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바로 이들이다. 매년 대학 입학 경쟁률 보도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영화 관련 학과의 지망생들은 오늘날 명문대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 못지않은 열병을 앓아가며 인생의 문을 열고 있다.

필요가 있는 곳에 발명이 있다는 말은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이 있으며, 지원자가 몰리는 곳에 학과가 개설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가운데 99년 현재 영화관련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30개에 이르며, 2년제 대학만도 14군데나 된다.¹⁾ 무려 40개가 넘는 대학들이 영화와 관련된 인력들을 배출하는 셈이다. 상당수의 대학들은 90년대 이후에 영화 관련 학과들을 개설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은 직업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시대'를 맞아 연예인이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여겨지는 마당에서 연예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교육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어찌 대학의 상업화된 전략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연예인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공헌도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 시대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닌 현실과 부합된 살아 있는 교육을 진행시킨다는 점에서 영화 관련 학과의 개설은 컴퓨터 공학과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논점은 어느새 몰라보게 늘어난 영화 관련 학과의 숫자가 의미하는 변화된 이 사회의 문화 현상이며 의식의 흐름이다. 한국의 대학 입시 문화는 그 시대의 사회 변화와 아울러 동시대 한국인들의 삶의 지향점과 의식을 대변

1) 『시네21』, 1999년 12월 14일자 보도. 99년도 입시 당시 한양대 연극영화과 특차 경쟁률은 무려 46대 1에 달했다.

하고 있다. 60년대 대학의 인기 학과가 화학 공학이나 섬유 공학이었던 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초기의 주력 산업이 비료와 섬유 분야에 집중되었던 까닭이었다. 70년대 중동 지역 건축붐을 타고 일어난 건축학과의 인기나, 80년대 자동차, 전자 제품의 수출 호조와 맞물린 기계, 전자 관련 학과의 인기 등은 대학 입시 문화가 사회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것은 영화배우와 같은 연예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영화의 세계에 거는 기대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십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판따라'라는 저속한 용어로 불리기까지 했던 연예인은 매스미디어 사회의 핵으로 자리잡았다. 연예인이 나오지 않는 TV, 비디오가 없는 가정, 영화관이 없는 도시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매스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대중지향적 성격은 정치가나 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단한 삶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잠시나마 위로를 주며, 일상적인 생활의 현실과 꿈을 함께 보여 줄 수 있는 연예인이야말로 대중들이 원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스미디어 사회에서 권위 있는 존재는 누구이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이 선거 유세 때 연예인들과 동행하거나 연예인이 정치가로 변신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과거와는 달리 몰라보게 커진 연예인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막연한 오락거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적인 것이 아닌 오늘날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를 읽는 주요 텍스트로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II. 그리스도인의 영화비평의 필요성

영화는 개인의 창작물에 그치지 않고 아울러 사회의 산물이며, 그것을 소비하는 관객, 개인 그리고 사회와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 영화는 창작자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상과 음향의 도구를 통해 드러낸다. 그러나 영화는 다른 공연 예술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개를 전제로 제작된다. 즉 개인이 혼자 즐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상품의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영화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이며 또한 사적인 현실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해석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영화 역시 다른 예술 문화와 마찬가지로 성경적 시각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존재가치를 신앙의 눈으로 점검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를 평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는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감독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사상, 인간관, 세계관 등이 드러나고 있다.

둘째, 영상으로 표현된 영화 속의 내용들은 관객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어 사고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상업영화는 아직까지도 스타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영화 속의 스타들은 현실 속의 관객의 행동을 규정짓기도 한다.

셋째, 현대 영화들은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로 주장하지만 그것을 보는 관객들의 인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영화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효과들은 오직 관객 개인의 선택에 의지하고 있다.

넷째, 대중 영화들은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영화는 보되 자신의 신앙과 관련성을 맺지 못하거나 방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혹자는 세상의 전문 영화 비평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더 재미있게 혹은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별 생각 없이 보거나 성경적 가치가 배제된 일반적 가치에 의해 영화에 대한 판단을 위임해 버리기에 뭔가 개운치 않은 점이 남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영화란 다른 물질 세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세계를 계속 간섭하시는 하나님과 연관을 맺는 노력 가운데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배제하고 단지 영화를 영화로서 보는 것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제한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를 볼 때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른 그 무엇을 요구받게 된다. 이것은 문화를 보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만 급변하는 현대 문화 속에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나타난 영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대체로 네 가지 모습²⁾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영화에 종속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영화의 감상과 이해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시간을 때우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또는 오락거리로서 즐기

2)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관계를 언급한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나 로버트 웨버의 「기독교 문화관」을 참고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위한 목적으로 관람을 하게 되며 영화를 본 이후 비평이라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다만 관람 후에 ‘괜찮은데, 좋았어, 재미 없네’ 정도의 감각적인 반응만을 나타낼 뿐이다.

이들의 문제점은 오락거리로서 영화를 즐긴다는 데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문화, 특히 예술이라는 범위 내에서 문화가 주는 기능이란 오락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또한 예술이 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누릴 만한 사람들인 까닭이다. 예배 시간에 다가오는 경건한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문화의 모든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란 점을 여기서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영화가 주는 오락적 요소들을 영화 관람의 모든 것으로 삼으며, 그 외에 영화가 알게 모르게 줄 수 있는 영향력들은 무시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영화는 단지 ‘재미’라는 가치에 의해 판단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영화에 몰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쾌락주의에 빠질 위험을 안게 된다. 에로물이든 공포영화든 재미있다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보는 사이에 이들은 영화의 흡입력에 자신을 맡기고 통제 불가능해진 자신을 즐기곤 한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현실보다는 영화 속의 세계에 머물기를 더 원하게 된다. 소위영화광으로 발전할 경우 그리스도인조차 더 자극적인 것을 즐기게 되고 역사의 현장인 현실의 세계보다는 영화 속 꿈의 세계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경우 그리스도인은 영화라는 대상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지지 못하고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마는 것을 보게 된다.

둘째는 ‘영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영화는 악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이

에 해당된다. 인간의 문명이란 죄된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인 만큼 인간이 만든 문명, 특히 기계화되고 소비적이며 쾌락적인 문명의 세계를 거부하고 가능한 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세계 속에서만 그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아미쉬 교도들이나 미국 남부의 일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특히 영화가 상업주의 방편으로 치달으면서 현저히 나타난 신체의 심한 노출과 폭력, 그리고 공포 영화 속의 악마주의적인 형태들을 영화가 가진 최악된 면이라 판단하고 영화 관람을 금기시하고 있다. 이들은 영화가 줄 수 있는 교육적, 선교적 가치들은 극히 작은 부분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영화를 기독교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를 거부하는 만큼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해악적인 요소들로부터 영향은 거의 받지 않지만 아울러 영화가 줄 수 있는 유익한 면도 놓치게 마련이다.

셋째는 ‘영화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영화에 몰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영화를 무시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영화의 영향력을 잘 간파해서 적절하게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의 특징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란 점이다. 즉, 영화를 대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으며 내용의 전개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수용하는 데 부적절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영화라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고 오직 재미에만 매달리는 법도 없다. 이들에게 좋은 영화의 기준은 영화의 완성도를 따지는 작품성과 아울러 성경적인 잣대가 하나 더 추가된다.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나서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언제든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대체적으로 복음과

문화의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는다. 문화(영화) 때문에 복음이 소멸되는 법도 없고 또한 복음을 교회 안에만 제한시키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문화(영화)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잃는 법이 없다. 이들은 영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영화에 대해 주체적이며 능동적이고 그것을 신앙에 적절히 이용할 줄도 아는 것이다.

끝으로 '영화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것은 영화라는 세계를 자신의 삶의 현장이며 선교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최악된 세상이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듯이 이들은 구원 사역의 대상으로 영화를 사랑한다. 물론 영화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수용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이들에게는 전제 조건으로 따른다. 일단 복음 안에서 문화를 적절히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영화라는 대상을 단지 관람하는 입장, 즉 수용자적 입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복음 문화 창조의 대상으로 보고 뛰어드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영화의 세계 속에 공공연히 잠재해 있는 악마적인 요소들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세상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지 않듯이 이들은 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도구 자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만든 인간에게서 문제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 만드는 데 재능 있는 거둬낸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뛰어들면 영화는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대 대중 문화를 선도하는 매체가 주로 영상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입장은 더 폭 넓은 지지와 중요성을 갖게 되리라 예상된다.

III. 영화비평의 일반적 방법

대부분의 관객들에게 영화 비평이란 단지 개봉중인 어떤 영화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화를 본 후의 즉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마련인데, '재미있다', 혹은 '재미 없다' 등의 인상주의적 평가와 아울러 친구들에게 불 만한지의 여부를 알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것도 물론 저널리즘적인 영화 비평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화 비평의 세계는 이보다 훨씬 넓고 깊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영화 비평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즉흥적으로 영화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평가하는 데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비평은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이 정서와 의미를 느끼는 것은 물론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화의 양식을 밝히고 관찰하는 행위이다.³⁾ 즉 영화를 보고 난 후 그 영화에 대하여 일련의 질서를 부여하고 자신과 사회와 연관지어서 관계를 구성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화학에서 사용하는 영화 비평법은 세 가지의 범주 안에서 행해진다.⁴⁾

첫째는 텍스트적 방법으로 각각의 영화들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위주로 한다. 즉 스크린 안에 나타난 영화를 텍스트 삼아서 영화 속의 내용과 형식이 잘 조화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흥미로운 것인지에 대해 언급한다. 주말 일간지에 실리는 주말 개봉 영화 소개와 같은 저널리즘적 방법이나 영화를 예술로 인정하고 전통적 미학의 체계 안에서 영화와 작가를 평가하는 휴머니즘적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텍스트적 비평 방법은 영화를 보는 관객이나 영화가

3) 팀 비위터 · 토마스 소빅 지음, 이용관 옮김, 『영화비평의 이해』, 예전사, 14-16쪽.

4) 이 비평 방법은 다양한 비평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서 팀 비위터 · 토마스 소빅의 위의 책을 참고한 것이다.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는 컨텍스트적 방법이다. 텍스트적 비평 방법이 스크린 안에 나타난 현상들에만 주목한다면 컨텍스트적 방법은 시각을 스크린 안쪽보다는 스크린 바깥 세계에 더 주목한다. 즉 영화는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해석 없이 영화를 논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화와 사회, 영화와 개인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영화는 그 시대의 사회와 구성원들의 현실과 의식을 투영하고 있으며, 반대로 사회와 관객은 영화의 영향력을 받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토니 스코트 감독의 86년 영화 <탑건>이 흥행에 성공한 후 미 해군 항공대 입대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과 같이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컨텍스트적 비평 방법에는 영화를 사회 현상으로 파악하는 사회과학적 방법이 대표적이다. 사회과학적 비평 방법은 영화 제작과 영화 감상을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집단행위로 보고 있는 동시에 영화는 관객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컨텍스트적 방법에는 또한 영화의 기술적 발전이나 영화 제작과 수용의 갖가지 시대적 변화를 읽어 내는 역사적 방법론이 포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컨텍스트적 비평 방법에서 현대인들이 주목했던 것은 이데올로기적 비평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영화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론 비평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영화가 작가나 시대의 사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특정 사조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비판한다. 페미니즘 비평이나, 마르크스주의 비평, 신프로이트적 비평은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텍스트적 컨텍스트 방법이다. 이것은 영화 하나를 보고 분석하는 텍스트적 비평이나 영화 밖의 세계와 주고받는 영향

에 대하여 말하는 컨텍스트적 비평의 중간에 놓인 비평 방법으로서 여러 영화들이 지닌 관계 속에서 개별적인 성격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장르 비평의 경우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 일련의 영화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특정영화를 분석한다. 장르란 관객들이 특정 영화를 선호하는데서 기인한 유사 영화들의 분류법인데, 한 장르의 유행이란 곧 그 시대와 관객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어서 컨텍스트적 비평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기에는 유달리 재난이나 종말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고, 관객들은 이러한 영화를 즐겨 찾았었다. 이것은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나타난 세기말적인 사회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이러한 장르 비평을 통해서 가능하다. 텍스트적 컨텍스트 방법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작가주의적 비평이다. 한 영화감독이 연출한 여러 작품에서 발견되는 일관된 성향을 읽어 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권택 감독의 80년대 이후 작품세계를 보면 하나같이 한국의 민족적 정서라고 일컫는 한(恨)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길소뜸>은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의 한을, <씨받이>는 애를 낳아도 키울 수 없는 여인의 한을 담고 있으며, <서편제>에 와서는 득음(得音)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한을, 그리고 최근 영화 <노는 계집 창>에 와서는 몸을 파는 여인의 현대적 한을 묘사했다. 이러한 여러 작품이지만 일관된 흐름을 지닐 때 그 감독은 작가라고 불릴 수 있으며, 그 감독의 한 작품을 분석하더라도 다른 영화와 공통된 사항을 중심으로 판별하는 것을 작가주의적 비평이라 하는 것이다.

IV. 그리스도인의 영화 비평

기독교 영화 비평 혹은 그리스도인의 영화 비평이라 불리는 성경 중심의 영화 비평의 선결과제는 두 가지의 범주를 정하는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영화 비평을 읽을 대상을 정확히 하는 일이며, 다른 한 가지는 영화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비평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즉 그리스도인의 영화 비평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들도 함께 읽는다고 가정하고 비평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영화의 텍스트와 컨텍스트 가운데 무엇을 다룰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
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
라서 성경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인의 영화비평은 일단 모든 사람
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아울러 비평의 범주 역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영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그리
스도인의 비평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론이 현
실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답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비평이며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한 비평이지
만, 글을 쓰는 매체의 성격과 시대적인 중요성에 비추어서 대상과
강조점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회 교역자들이
주 대상인 잡지에 실린 영화 비평은 정보와 교육적 가치를 담은 컨
텍스트적인 비평일 수 있지만,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가족끼리 주말
을 보낼 때 함께 볼 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텍스트적 비평, 그 중에

서도 저널리즘적 비평이 바람직하듯이 말이다. 세상 사람이 함께 보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진술을 담아 내거나, 교리 중심적인 서술에서 시야를 넓혀 일상 현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 중심적인 비평,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식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영화세계 전체를 조망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1) 통합적 비평

그리스도인의 영화 비평이 막상 글을 읽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교리를 중심으로 한 내용비평에만 너무 치중했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내려 버리기 일쑤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리와 부합되는 내용이 있거나 주인공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라도 하나 흘러나오면 눈과 귀를 쫓긋 세우며 좋은 영화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만을 지키며 살아 가지는 않는다. 푸른 하늘과 노을지는 석양의 아름다움도 감상할 줄 알며, 교통 신호도 지키고, 야구를 할 때는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 가는 것이다 전체와 부분에서 두드러진 부분에 대한 강조는 전체에 대한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형식을 외면한 채 내용에만 집착하는 것은 산업이자 예술인 영화에 대한 반쪽 이해에 불과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물을 담은 그릇의 모양새에 따라 바뀌는 물의 형상적 특징은 외면한채 H₂O라는 물분자를 가지고 물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것과 같다. 물이야 화학 구조가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물맛이 다르고, 이 역시 물을 마시는 이의 갈증의 정도에 따라 물맛이 갈리

는 이치를 물의 분자식이 어찌 풀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양각색의 요소들로 결합된 영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줄 아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영화 세계의 구조부터 살펴 보자. 영화는 아래와 같은 4가지의 기둥으로 지어진 건물과 같다.



영화는 제작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가치를 전부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을 갖춘 극장이 필요하다. 영화를 극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배급업자 역시 한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상영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것으로 그 영화에 대한 평가를 마감할 수는 없다. 영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그것이 관객들에 의해서 소비될 때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관객이 외면했지만 비평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은 영화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 문화의 속성상 상품적 가치를 인정받는다든 것은 그것이 곧 많은 사람에 의해 소비됨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영화의 제작과 유통, 소비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 한 영화의 생명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평은 이 세 가지 영역을 관찰하고 더 좋은 영화(이 말은 입

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극장주에게는 관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영화가 당연히 좋은 영화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만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가 제작, 유통, 소비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비평의 영역은 단순히 관객들에게 영화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돕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영화 자체에 대한 밀도 있는 조언과 관객들에게서 일어난 반응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 영화의 제작과 유통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 비평의 일차적 관심은 제작의 영역에서 산출되는 영화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영화를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화를 보고 난 후 자신이 경험한 영화를 가지고 얘기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존재하지 않듯이 영화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생산해낸 제작진들이다. 특히 영화사의 최고 경영진들은 영화 탄생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점이 지금까지 기독교 영화가 비평을 하면서도 간과했던 부분이었다. 우리는 흔히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감독이나 주연배우로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적인 영화제작의 형태에는 자본을 모아주는 제작자야말로 가장 큰 힘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영화 전문 잡지들은 매년 헐리우드 영화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상위 순위에 오른 인물들의 면모를 보면 이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인 대중 영화 잡지인 『프리미어』지는 1999년 7월호에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힘있는 100명의 목록을 뽑았다.⁵⁾ 영화 왕국에서 누가 왕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보자.

5) 『프리미어』 한국판, 1999년 7월호.

이름	직업	특징
1 루퍼트 머독	뉴스 코퍼레이션 회장	20세기폭스사, 스포츠네트 소유
2 마이클 아이즈너	윌트 디즈니사 회장	만화영화와 일반영화를 총괄
3 셉녀 레드스톤	비아콤사 회장	MTV 네트워크 소유
4 스티븐 스필버그	드림웍스 경영파트너	제작과 감독을 겸하는 영화 천재
5 에드가 브로프먼 주니어	시그렘사 회장	MCA/유니버설사와 책무관계, 폴리그램사 인수
6 피터 체르닌	뉴스 코퍼레이션 사장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에 투자
빌 매카닉	폭스사 사장	(타이타닉) 제작, 체르닌의 파트너
7 조나단 들겐	비아콤엔터테인먼트 회장	(트루먼쇼) 제작
제리 랜싱	파라마운트사 회장	들겐의 파트너
8 조 로스	윌트디즈니사 사장	(아마겟돈) 제작
9 로버트 달리, 테리 시벨	위너 브러더스 공동 회장	위너 뮤직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
10. 조지 루카스	ILM사장, 독립영화제작자	(스타워즈)의 감독

영화배우는 감독을 겸하는 이들을 합쳐서 100명 가운데 34명에 불과하다. 뉴스 코퍼레이션 사장인 피터 체르닌은 신작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인 톰 크루즈를 출연시키기 위해 <아이즈 와이드 샷>을 찍고 있었던 런던으로 날아가기도 했다. 제작자들은 돈만 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형 스타들을 접촉하고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최종 영화 제작의 판단을 내린다.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영화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2) 참여적 관찰자의 입장⁶⁾

영화비평의 어려움은 영화를 즐기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6) '참여적 관찰자의 입장'이란 용어는 미국의 종교학자인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교수의 '인격주의적 연구'라고 하는 종교학 연구 방법론에서 차용한 것이다.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지음, 김희성 옮김, 『종교의 의미와 목적』, 분도출판사, 1991 참조.

비판이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비평가들은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즐기고 나올 뿐이라며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비평가 본인은 어느새 영화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강박 관념이 짝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에 서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성경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긴장하게 되고 그런 영화에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영화관에서 확인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영화를 즐겨서는 안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스도인 영화 비평의 기본 자세란 마치 반(反)기독교적인 내용을 색출해 내기 위해 눈을 부릅뜨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평의 출발점은 영화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이 영화를 보아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며 그것이 성경적 정당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일단 영화의 세계에 자신 있게 발을 디딜 수 있다. 영화를 가장 잘 보는 비결은 영화의 흐름에 일단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화가 무엇을 보여 주길 원했는지를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필자는 '참여적 입장' 이라고 명명한다. 어항 밖에 있는 파리가 어항 속 금붕어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항 밖에 머무르는 한, 파리는 금붕어에게 영원한 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반 관객이 반응하는 것처럼 영화에 대하여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다. 코미디 영화를 분석한다고 일부러 웃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코미디일 뿐이다.

'참여적 입장' 이 주는 유익은 다른 관객이 느끼는 사항을 함

게 공유하게 됨으로써 비평의 일반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만큼 객석의 반응을 내 몸 안에 담아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비평의 특성은 물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볼 때 ‘참여적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울러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비평을 하기 위해 아울러 ‘관찰자의 입장’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관찰자의 입장’이란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영화의 논리에 종속 당하는 일 없이 영화의 안과 밖을 두루 꿰뚫어보는 시각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참여적 입장’이 감성적이며 이해적이고 수동적인 해석이었다면 ‘관찰자의 입장’은 이성적이며 분석적이고 적극적인 해석 작업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가능하게 된 것은 ‘거듭보기’를 통해서이지만, 단 한 번을 관람하더라도 보고 난 후 ‘관찰자의 입장’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작업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적 입장’과 ‘관찰자의 입장’을 적절히 조화시킨 ‘참여적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를 즐기면서도 혹시라도 영화가 지닐 수 있는 부정적 논리에 종속 당하지 않는 관람법이자 비평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분석 작업의 구체적 내용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알렌 맥도날드는 그의 책 『영화, 보는 즐거움 읽는 기쁨』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건 간에 적용해야 할 두 가지 커다란 질문의 영역과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더 세밀한 네 가지의 물음들을 언급하고 있다. 즉 ‘그것은 선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7) 알렌 맥도날드 지음, 양혜원 옮김, 『영화, 보는 즐거움 읽는 기쁨』, 선한 이웃, 1995, 124-127쪽.

진실한 것인가?’ 라는 큰 두 가지의 질문이다.

첫 번째 ‘그것은 선한 것인가?’ 라는 큰 질문 안에는 ‘그것은 독창적인가’, ‘그것은 만족스러운가’, ‘그 인물들은 현실적인가’, ‘우리를 참여시키는가’ 를 묻는 네 가지의 작은 질문이 들어 있다. 또한 ‘그것은 진실한 것인가?’ 를 묻는 큰 물음에 대하여서는 ‘그 영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무엇이 존재하는가’, ‘행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를 묻는 작은 질문이 담겨 있다.

첫 번째 큰 질문인 ‘그것은 선한 것인가’ 하는 영역은 일반적 영화 비평에서 객관성을 살리는 가운데 작품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물음들과 유사하다. 작품의 창조성과 영화를 구성하는 일련의 요소들, 즉 카메라와 음향, 조명, 연기, 연출, 내러티브 등이 잘 구조화되었느냐를 함께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맥도날드의 두 번째 큰 질문 영역인 ‘그것은 진실한 것인가?’ 의 물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영화를 평가하는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먼저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영화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영웅본색>과 같은 오락성이 짙은 영화조차도 사나이들의 우정과 복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주제가 드러나면 내가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동의할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포르노 같은 영화들이 영화 비평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는 이유는 이 같은 주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무엇이 존재하는가’ 의 질문은 존재의 성격과 사실성 여부를 묻는 것이다. 등장 인물과 배경 그리고 사건의 사실성은 영화 이해의 가장 기초적인 단서가 된다. 어린아이들이 영상물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영화 속의 내용과 현실을 착각하는 것이다. 영화 속 존재의 성격이 자연에 속한 것인지, 영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도 이 질문을 통해서 얻는 결과다. 세 번째 질문인 ‘행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

은 영화 속 선과 행복이란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과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할리우드의 영화가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해피엔딩이다. 끝에 가서는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주인공은 행복을 얻는 줄거리가 주류를 이룬다. 이때 주인공이 누리는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돈이나 권력, 성적 욕망의 실현 혹은 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영화 속 환상으로부터 서둘러 벗어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질문인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기독교 윤리적 비평의 핵심이다. 영화 속 주인공과 주변의 인물이 벌이는 행위는 성경적인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황윤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알랜 맥도날드의 이 같은 비평법 제시는 막연히 성경을 근거로 하는 비평이라는 지금까지의 기독교내 비평 방법에 세밀한 대안으로 다가설 수 있다.

(3) 대화 - 가장 현실적인 영화비평

영화는 열린 매체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누구나 쉽게 자신이 본 영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화의 열린 매체적 특성은 영화 비평이 다른 비평보다 주관적으로 흐르는 경향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 일간 신문이나 영화 잡지에 실린 평론가들의 점수 매기기를 보면 같은 영화, 심지어는 같은 자리에서 함께 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곧 영화를 평가하는 데에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 객관적이며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영화의 다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의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대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평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 받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하며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적인 영화관람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대화'야 말로 큰 준비와 어려움 없이 성경적인 잣대로 영화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아마추어일수록 대화를 통해 얻는 지식의 양이란 적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이 과연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대화란 사적인 지식에 머무르던 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꺼내 놓는 작업인데,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이 대화가 수행될 때에는 마치 어두운 대상물에 빛을 쬐임으로 인하여 밝히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일단 대화를 통한 성경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게 될 때 입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

V. 예루살렘과 할리우드 - 결론을 대신하며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향이다. 우리는 일생에 한번쯤 예수님이 지나가신 발자취를 따라 그곳에 가 보고 싶어한다. 할리우드는 현대 대중 문화의 고향이다. TV와 비디오 영화 등 영상매체에 길들여진 신세대들에게 할리우드는 가장 매력적인 도시임이 틀림없다. 그곳에 가면 기적이 이루어지거나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은 할리우드를 꿈꾼다. 그러면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결국 우리는 앞의 논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영화에 대한 성경적 조망을 통해서 현

대 영상 문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또 하나는 영화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의 모색이다.

영화 비평에는 영화 세계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듯 할리우드나 충무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총체적 변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작과 유통, 소비와 비평 등 어느 한 분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홀대받는 일 없이 모두 성경적 조망과 가치를 부여받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화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룰 수 있다.